

광주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 시작된다

내일 광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 출석 예정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최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기소된 간부급 공무원과 함께 병합재판이 시

작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22일과 29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

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간사위원장, 전 환경생태국장 A씨, 전 공원녹지과 직원 B씨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민간공원 업무 등을 담당한 광주시 공무원 등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부시장



수중에서 전하는 설명절 인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아쿠아플라넷63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이 설 맞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63은 설 당일 한복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63종 협력을 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명절 연휴 광주서 하루 평균 123명 119구급차 이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해 설 명절 연휴 단체 동안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615명으로 하루 평균 123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질병 환자가 전체 환자의 66.5%(409명)를 차지했다. 환자 발생 유형별로는 전신 쇠약 77명(8.7%), 오심·구토 75명(8.5%), 복통 75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근육이 뭉치거나 뇌에 압박이 오면서 생기는 증상들과 친지간 음식물 공

동 섭취, 식품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 주를 이뤘다.

시 소방본부는 올 설 연휴기간 유스퀘어 광주터미널, 송정역 등 귀성객 운집지역에 119구급대를 현장에 배치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운영현황 등 119에 전화하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연휴기간 동안 구급차 배치 및 의료기관, 약국 안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회삿돈 117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20대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광주고법 “회사 재정상태 악화…죄질 매우 불량”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기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전 직원 박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평가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의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11개월 사이에 117억3150만원을 횡령하고, 86억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 윤 위원장, B씨에 대한 인증신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8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시 전 공원녹지과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재판과 정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밸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A씨와 B씨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함께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을 각각 광주시의원과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봉우 기자

● 단신 ●

라운드 중 머리에 골프공 맞은 60대 병원 이송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던 60대가 머리에 골프공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전남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5분쯤 담양군 청평면 한 골프장에서 A씨(64)가 머리에 골프공을 맞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머리 울리는 증상을 호소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 등은 옆 홀에서 공이 날아온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은방 문 부수고 귀금속 훔친 가출 청소년들

심야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군(15) 등 중학생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 유리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해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집을 나와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A군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도중 경보장치가 작동했고, 사설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군을 붙잡았다. 나머지 3명도 범행 현장 인근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인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안 비금도 저수지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19일 오후 9시2분쯤 전남 신안군 비금도 한 저수지에서 A씨(79·여)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친척 집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이 되도록 들어오자 암자 가족들이 찾아 나섰고, 저수지 부근에서 A씨의 보행보조기가 발견되자 수색을 벌여 숨진 A씨를 찾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 60대 집 안방서 숨진 채 발견

일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일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A씨(60)가 마지막 상담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센터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대상자로 지난달 3일 마지막 상담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안방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독센터 직원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